<서 평>

지하경제 입문서: 『불량 경제학(2007.3.25.)』 후기

윤리경영학회 상임이사, 조창훈[1)]

이 책은 교실 밖의 살아 있는 경제 교과서이며, 컴플라이언스와 감독규제 업무 종사자, 특히 수사기관과 자금세탁(방지)관련 업무 종사자의 필수 기본서이다. 불량 경제학(저자: 모이제스 나임/역자: 이진, 청림출판사, 2007.3.5.)

기업윤리관련 도서 후기를 보내달라는 학회 요청을 받고, 기업윤리관련 직무 및 실무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택하여 후기를 써야 한다는 혼자만의 욕심 덕분에 한동안 책 선정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책의 내용이 재미있으면서도, 일반인과 실무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돈'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을 택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 연장선에서 '실무'를 고려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더니, '자금세탁' 또는 '자금세탁방지'라는 '나'만의 답을 찾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보았던 책 『불량 경제학』을 다시금 보게 되었다. 지금 다시 보아도 그 내용이 재미있었다.

『불량 경제학』 이 책은 '검은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고 있으며, 기존 이론 중심의 경제학 교과서가 주기 어려운 재미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기업윤리'라는 주제 측면에서 볼 때, '윤리적이지 않는 조직체 또는 기업이 비(非)윤리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조직·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세탁)하여 운영할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시중 증권사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차원에서 '자금세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전투적으로 읽으면서 관련분야를 찾아가며 공부했다. 이 책을 **"검은 거래는 어떤 비즈니스를 거치면서 자금세탁을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었는데, 그 덕분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하면서 **'의심스러운 고객과 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찾아 조사하고 감독당국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전문가

1) 서강대학교 경영학전공 특임교수, chosury@compliance.kr

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하경제와 자금세탁의 세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감독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

'자금세탁'의 의미를 법률적·학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쉽게 정의한다면, 언제든지 국가의 감시감독(자금추적)을 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최대한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채널을 이용한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의 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검은 거래는 자금세탁은 필수이다. 의심스러운 고객/사업주/행위자들이 의심스러운 돈을 세탁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검은 거래 또는 지하 경제를 이해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관점'이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자금세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구매 과정에서 생각보다 적지 않는 자금세탁 행위에 동참했을 수 있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크고 작은 자금세탁 행위에 한번쯤은 소비자 또는 이용자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두방에서 백화점 문화 상품권을 (당연히) **'현금'**으로 사고 판다든가, 길거리 좌판 또는 특별한 매장?에서 해적판 영화·음원 CD와 소프트웨어 등을 (당연히) **'현금'**으로 산다든가, 정교한 가짜 명품을 파는 이들에게 (당연히) **'현금'**으로 구매 한다던가, 해외여행 및 해외에 있는 가족을 위해 환치기를 한다든가 ... ... 최근 들어 끔직한 사람장사? '인신매매', '장기 밀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사람장사가 개별 국가를 넘어서 매우 심각한 지구촌 문제화 되면서 희생자뿐 아니라 의료와 금융시스템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다양한 검은 거래의 세계를 (경제적인 유인이 되는) '돈'이라는 관점에서 무기, 마약, 노예, 아이디어, 돈세탁, 정부실패 등으로 분류하면서 다양한 사례와 관계자 인터뷰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지구본'을 통해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책 목차 >

1. 검은 거래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2. 국제 밀수업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3. 고삐 풀린 망아지, '무기상'
4. 최고 수익 보장, '마약업자'
5. 빈자들을 무덤으로, '노예 거래상'
6. 브랜드에 기생한다. '아이디어 도둑'

7. 검은 조직의 필수 파트너, '돈세탁업자'
8. 오랑우탄, 인간의 신장, 쓰레기, 반 고흐의 공통점은?
9.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
10. 해결에 나선 용감한 개인들
11. 검은 경제에서 지고 있는 이유
12.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3. 희망을 찾아서

이 책은 교실 밖의 지하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컴플라이언스와 감독규제관련 업무 종사자 특히 수사기관과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리고 대학 교육에서는 원론 수준의 기업윤리 또는 기업범죄관련 과목의 참고도서로 사용하며 이 책의 내용을 다룬다면, 시각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